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5
Spring

vol.177



봄 이야기

2007년 기부를 시작해 9년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로 따뜻한 결음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선 홍보대사 바쁜 활동 중에도 틈을 내어 홀트 아이들을 만나 봉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선 홍보대사가 말하는 '선물 같은 오늘'의 의미를 진솔하게 담아보았다. (p.19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7호 · 계간 **발행일** | 2015년 3월 16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장), 홍미경(홍보팀장), 박재범(후원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신유미(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Contents

- 03 Holt Letter
"사랑을 행동으로" 행복한 동행 60년!
- 04 홀트 창립 60주년 연중 시리즈
홀트아동복지회 60년간 빅이슈
- 06 입양, 우리 품으로
아름아 안녕, 난 사랑에 선택받은 아이
- 09 Zoom In
제9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 10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우뚝이를 위한 기도
- 12 Love In World
캄보디아에서의 3년... 아이들만이 희망이고 답입니다
- 14 곳곳GoodGood한 엄마
아가, 엄마가 언제나 지켜줄게!
- 16 기획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
- 장애인 인권운동가 홀트일산복지타운 송경수 씨
- 19 Holt Interview
오늘은 선물입니다
'지금'을 사는 남자, 선 홍보대사를 만나다
- 22 나눔이웃 나눔기업
홀트에 찾아온 '오병이어'의 기적
FNC 소속 가수 정용화 · 배우 성혁 후원자님
- 24 희망 풍경 1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Happy Journey 2014
- 26 희망 풍경 2
수성구다문화가족과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행복한 동행
- 28 홀트 게시판
- 30 Holt News

“사랑을 행동으로” 행복한 동행 60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이 땅에 뿌려진 해리 홀트 씨 부부의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행동으로”. 전쟁혼혈고아와 고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홀트아동복지회가 창립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홀트를 아끼며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고 그에 따라 복지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홀트도 변화하는 복지 욕구에 맞추어 버려진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과 심한 장애로 입양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뿐 아니라 교육 사업, 장학 사업, 장애인직업재활, 스포츠센터, 그룹홈, 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영아원, 아동보육, 건강가정,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캄보디아와 몽골에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외 아동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동포애로서 그들을 품으며 시작할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혼모들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계와 힘을 합쳐 미혼모 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위한 켄거루스토어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에게 긴급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인천과 광주에 완공될 복지센터에 치료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아동 전용 쉼터, 미혼양육모 시설을 개원해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보다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동구에 매입한 복지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트가 60년 동안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홀트를 사랑하고 아끼며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홀트는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 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전)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해경 이사(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훈 이사(주)복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미혼모자사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achim.or.kr/sub08/sub08_1.php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임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홀트아동복지회 60년간 빅 이슈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홀트아동복지회. 긴 역사를 가진 만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 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온 홀트의 발자취들, 홀트가 시작되었던 6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 1955년 10월 12일
최초 입양아 열두 명이
미국 포틀랜드에 도착.
이 중 8명은 홀트가에서 입양.

- 1955. 10 ● 최초로 12명의 아동 입양(홀트가에 8명 입양)
- 1956. 02 ● 홀트 씨 해외양자회 설립, 입양 복지사업 시작
- 1957. 01 ● 국내입양 시작
- 1962. 08 ● 일산원 설립, 장애인 복지사업 시작(현 일산복지타운건립)
- 1964. 04 ● 해리 홀트 씨 아동을 돌보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
- 1965. 04 ● 따뜻한 가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위탁 양육가정 운영 시작
- 1972. 07 ● 홀트아동복지회로 기관 명칭 변경
- 1973. 03 ● 부산·대구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국내입양 업무 본격화
- 1973. 10 ● 사보 <아동복지> 발간. 1982년 <홀트소식>으로 제호 변경
- 1974. 12 ● 마포구 합정동 사옥 건립
- 1975. 03 ● 장애인을 위한 완다학교(현 홀트학교) 개교
- 1975. 06 ● 입양인들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모국방문 첫 프로그램 실시



▲ 1956년
입양 가기 전 아이들이 머물던
일시보호소 기능의 고아원이자
영아원.



▲ 1960년
보호 및 양육 중인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 1975년
국외입양인 첫 모국방문 사업 시작.



▲ 2014년
제8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 1976. 04 ● 가정 위탁이 어려운 아동 보호를 위해 홀트일시보호소 개원
- 1980. 11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양육 위해 전주 영아원 개원
- 1982. 01 ● 부속의원(현 홀트의원) 개원
- 1982. 03 ●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의 열정을 이어가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사업 실시
- 1985. 11 ●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개관(현 5개소 운영)
- 1986. 11 ● 장애인스포츠험활사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준공
- 1992. 07 ●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한 모국연수 프로그램 시작
- 1995. 06 ● 제1회 홀트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개최
- 1999. 05 ● 정신신체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창단
- 2002. 10 ● 입양아동들의 자료를 영구보존하기 위해 기록보존실 준공
- 2004. 04 ● 장애인 복지를 위해 3,000평 대지 위에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 2004. 12 ● 입양아동 자아정체감 확립, 양부모 간 정보 공유 및 건전한 국내입양 문화 위해 '홀트 한사랑회' 결성
- 2005. 04 ● 안정된 환경에서의 출산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미혼모 복지사업을 위한 '아침들' 개원(현 3개소 운영)
- 2006. 01 ●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로 청소년 복지사업 확대
- 2006. 11 ● 미혼양육모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마포 클로버' 개원(현 3개소 운영)
- 2006. 12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현 3개소 운영)
- 2009. 04 ● '꿈과 희망 지원'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사업 확대
- 2011. 05 ● 해외 빈곤지역 및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홀트캄보디아사무소 개소(현 몽골사무소 확대 운영)
- 2015. 01 ● 미혼모자 가정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센터 시작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 5월 중 국내세미나(춘계 아동학회 개최 시)
- 9월 말 수기공모전 발간
- 입양 사례집 발간
- 연구보고서 발간
- 10. 14 Home Coming Day
- 10. 15 국제세미나
- 10. 16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식

아름아 안녕, 난 사랑에 선택받은 아이

사람들은 소이(3세)에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다 소 발달이 느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기도 하며, 그래서 조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첫 위탁가정을 시작한 이래 8명의 아이들을 양육한 이후, 2012년 운명처럼 소이를 만나게 된 송은정 씨 가족에게 이 아이는 그저 조금 다를 뿐 한없이 어여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2년 동안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소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소이를 떠나 보낼 수 없다는 것. 위탁으로 만나 가족이 되기까지, 혈연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선택받은 소이네 가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치유하며 단단하게 성장 중입니다.

“까, 까, 까~~~”
더없이 밝고 건강해 보이지만 엄마 송은정 씨가 기억하는 첫 모습은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신생아라도 아기들이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울고 보채거든요. 그런데 소이는 젖병을 물려도 먹으려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가끔 눈을 떠도 먼 곳을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듯했어요. 어느 아기들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여러 아기를 키워봤지만 아기입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슬퍼 보인 건 처음이었다고. 꼭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애잔한 마음이 든 아기였다고 말합니다.

소이는 생모의 여러 어려움으로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위탁가정으로 오게 되었고, 송은정 씨는 소이를 9번째 위탁자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 품이 아닌 자신의 품에서 고이 자고 있는 소이의 상처들을 모두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 소이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웃음꽃을 피우는 엔돌핀, 소이의 위탁모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송은정 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걷기가 온전하지 못하던 터라 단순히 소이가 또래보다 성장발달이 조금 느린 줄로만 알았는데, 8개월 무렵 ‘발달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단 이후 송은정 씨네 가족은 작업치료와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소이는 더 나아지지 않았고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 현실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가정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송은정 씨 가족은 소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처를 우리가 보듬어 보자고... 감정이 정리되고 나니 어느새 송은정 씨는 위탁엄마가 아닌, 그냥 '소이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이에게 온기를 준 가족, 가족에게 빛이 되어준 소이

사람들은 소이더러 '이상하다' '남들과 다르다'고 말하곤 합니다. 벌써 말을 해야 할 나이인데 말도 잘 못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한데다 여전히 얼굴엔 그늘을 드리우곤 하거든요. 하지만 송은정 씨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느린 것뿐이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X자로 걸던 건 몇 달 전 치료가 끝났고, 가끔 걸음이 심하게 꼬인다 싶으면 두어 달씩 재활치료를 받곤 하죠. 말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어디 있지?” “이건 뭐지?” 처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불쑥 내뱉을 때가 있거든요. 아직은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전혀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 덕에 제 아이가 될 수 있었는걸요(웃음).”

아빠는 가끔 소이에게 투정부리듯 말하곤 합니다. “소이야, 아빠가 60세까지만 일하고 그 후에는 채소 키우며 전원 생활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너 때문에 75세까지 일하기로 마음을 바꿨단 말이야. 그럼 너, 아빠한테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말은 이렇게 해도 아빠에게 소이는 천금보다 귀한 막내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입양을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데다 심장도 약하고, 뇌에는 빈 공간이 많고 주름도 일반인보다 적은 등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조금은 겁났기 때문이죠.

“홀트에서 입양가정을 찾기 어려운데다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서 시설로 보내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전 도저히 치료를 위해 시설로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장 결정하지 말고 한 달만 생각해보자던 남편도 제가 매일 울며 밥



도 못 넘기자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사실, 남편도 소이가 마음을 열고 예쁜 짓을 하기 시작하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후였어요. 또 하나, 저희가 위탁했던 남자아이 중 해외로 입양된 승훈이라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행여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봐 상대방이 먼저 '입양하자'는 말을 꺼내주길 기다리지만 하다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그때의 상처와 후회가 소이를 입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에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소이는 2014년 4월 정식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부부에게 소이는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온 이 녀석 덕분에 요즘 부부는 생각부터 생활의 모든 면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더욱 챙기게 됐고요. 50대지만 30대의 시선을 가지게 됐다며 송은정 씨는 수줍게 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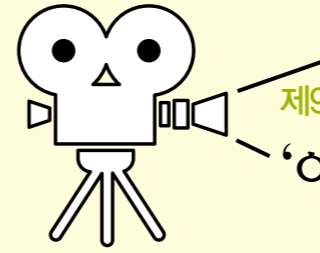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고마워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어딜 보내?”라더군요. 애가 웃긴 게 작은오빠가 그렇게 예뻐하고 뽀뽀하며 들이대는 데는 차도녀처럼 굴면서, 오히려 무뚝뚝한 큰오빠는 엄청 좋아해요. 유일하게 먹을 거 나눠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저랑 큰오빠랍니다(웃음).”

남매는 이미 역할 분담을 끝냈다고 합니다. 훗날 경제력이 생기면 큰오빠는 학비를, 작은오빠는 용돈을, 언니는 옷을 담당할 계획이라고요.

이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소이는 이제 짧게나마 말도 하고, 좋고 싫다는 의사표현도 확실히 하며,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 활기찬 소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소이의 투명한 눈을 바라보며 엄마는 말합니다. 어딜 가든 당당하라고, 누군가 너의 입양에 관해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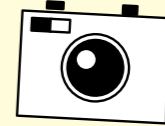
“너희는 엄마 아빠가 낳아줬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선택받은 몸이야!”

그렇게 가족의 사랑 안에서 소이는 오늘도 조금씩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반짝이는 빛을 품으며 커갑니다. #소이



제9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주제

“소중한 내 아이, 행복한 우리 가족”

●소재

- 입양으로 탄생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키우기 위한 작품
-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입양으로 만나 '가족'으로 엮여 행복했던 순간들, 기쁨과 아픔이 공존한 입양가족들의 아름다운 추억

●응모 기간

2015. 3. 10(화) ~ 2015. 4. 7(화)

●참가 자격

입양가족 누구나

●공모 분야 및 형식

- 사진 jpg 형식 (2200×1500pixel 이상 권장)
- 동영상 창작 제작한 동영상(사진 편집 포함)으로 3분 내외, wmv, avi 파일
- 응모 응모자 또는 가족이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으로 각 1인 2점 응모 가능

●시상 내역

사진	동영상
• 대상(1점) 50만 원	• 대상(1점) 100만 원
• 우수상(4점) 20만 원	• 우수상(2점) 50만 원
• 입상(5점) 10만 원	• 입상(7점) 20만 원

• 참가기념품 10명



함께 가자, 우리



해피투게더



●접수 방법

- 제출물 참가신청서(www.holt.or.kr에서 다운로드)와 응모작
- e-mail 접수 사진·동영상 prholt@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발표

2015년 5월 1일(금)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079 / prholt@hanmail.net

●주최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보건복지부



사랑하면 행복이 배가 돈다더니



뚝 떨어진 엄마와 아들



안녕? 내 동생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우빈이를 위한 기도

갑상선관낭으로 수술을 받고, 뇌갈림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빈(가명, 26개월)이는 잘생긴 얼굴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이. 그러나 수시로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고, 간질 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며, 몸에 올 수 있는 마비 증상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 등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다. 우빈이에게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꼭 하늘에 전달되어 똑바로 바라보고 두 팔로 힘껏 안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사슴 같은 눈망울의 행복한 아기 우빈이

위탁엄마와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기. 홀트에서 위탁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알아주는 꽃미남인 우빈이는 누구보다 백옥처럼 하얀 피부에, 사슴처럼 크고 까만 눈망울을 가지고 있어서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아이다. 올 1월, 첫돌을 맞아 다른 아기와 마찬가지로 혼자 서서 몇 걸음 걸을 수 있으며, 걷다가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쿵 찧고 울다가도 위탁엄마만 보이면 입을 활짝 벌리며 웃는 엄마 바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우빈이를 바라보는 위탁엄마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아이를 들쳐 안고, 옷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주고 보듬으며 걱정하다 이내 따라 웃고 마는, 역시 우빈이 바라기다.

갑상선관낭과 뇌갈림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2014년 1월 세상의 빛을 본 우빈이는 걸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만 숨소리가 거칠고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우유 1병도 여러 번 나누어 먹어야 해서 걱정을 많이 끼치곤 하던 아이.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걱정돼 병원에 갔더니 어린 아기에게서 좀체 보기 드문 갑상선관낭(목에 발생하는 선천성 낭종)이 발견되었다.

결국 절제수술을 받게 됐지만, 그 후로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보통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오른쪽 팔이 뻗뻗해지고 왼쪽 팔은 약해지는 데다 가끔 팔이 뒤틀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물리

치료를 시작했지만 우빈이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예쁜 눈망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서둘러 뇌 MRI와 뇌파검사를 한 결과 내려진 것은 뇌갈림증이라는 청천벽력. 원인을 알 수 없고, 발달지체나 기능저하, 편마비, 간질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는 병인데다 심지어 딱히 치료 방법도 없단다. 이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온갖 정성 어린 치료에도 찾아온 틱장애

위탁엄마는 우빈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볼 작정이다. 그래서 홀트의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물리치료도 힘들지만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고, 집에서는 어껴너머로 배운 물리치료를 따라 우빈이에게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으려나 싶은 마음으로 아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발달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요즘은 손등으로 턱을 반복적으로 치는 등 틱 장애를 보이기 시작해 갈수록 걱정이 태산.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 위탁엄마는 안타깝고 또 안타깝기만 하다.

우빈이는 위탁엄마가 품에 안으면 웃을 꼭 부여잡은 채 폭 안



겨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평생을 지켜봐야 하는 장애를 가졌으니, 한시도 마음을 놓지 말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간질에 대비해 매일 항경련제도 먹어야 한다. 끝없는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너의 웃음, 영원히 계속되길...

돌이 지난 우빈이는 요즘 가구를 붙잡고 서서 온종일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아직은 서툴러 자주 넘어지는 탓에 위탁모는 우빈이 뒤통수니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젠 귀여운 목소리로 "엄마~ 엄마~" 부르기도 해서 '언어장애는 없으려나?' 작은 희망을 품어본다.

홀트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은 눈물, 콧물 다 빼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라도 미소를 주는 밝디밝은 아이. 이렇게 웃음 많고 주위 사람들의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행복한 아이라면 언젠간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우빈이의 해맑은 웃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

글_ 표미연·아동양육팀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하은이는

선천성 구순열과 심장에 구멍이 나는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병을 안고 태어났지만 항상 밝게 웃는 사랑스러운 애교천사로,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며 완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하루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캄보디아에서의 3년... 아이들만이 희망이고 답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이기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한 캄보디아홀트드림센터에서의 지난 3년. 아이들의 맑고 깊은 눈망을 속에서 희망을 잃기도 하고, 때론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5월에 캄보디아홀트드림센터와 아쉬운 작별을 고하는 이태경 센터장이 홀트드림센터의 아이들과 봉사자들에게 전하는 사랑, 그 솔직하고 따뜻한 고백을 지금 만나봅니다.

3년 전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내딛은 날

2012년 5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약 5시간 걸려 도착한 프놈펜. 비행기의 문이 열리자 덥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숨을 들이쉬니 몸속 깊숙이 캄보디아의 습결이 퍼졌습니다. 공항 앞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들, 연신 땀을 만들어내는 덥고 습한 날씨... 늦은 밤이라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프놈펜에 대한 저의 첫 느낌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날 험한 길과 모래 먼지를 뚫고 힘겹게 도착한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트라피앙 안찬 마을. 사진으로 접하며 상상하고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었기에 앞으로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도착한 순간 이전에 계획하고, 상상하고, 각오했던 많은 부분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센터 앞에서 반겨주었고, 그 아이들의 눈을 보는 순간 전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 떠날 날이 몇 달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과 다름없이 맑고 깊은 아이들의 눈을 보며, 이 아이들의 가능성 하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봉사단의 사랑과 나눔에 대한 열기

지난 3년여 시간을 되돌아보면 '사랑을 행동으로' 행하는 여러 봉사자와 봉사팀이 참 많았습니다. 세광고교회, 신반포교회, 홀트전국후원회, 부산대학병원 이미봉사단, 스톨란홀트 대학생 봉사단, 온누리교회, 전주대학교, 홀트학교 등 한 번 맺은 인연을 매년 잊지 않고 드림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특히 이미봉사단은 이번에 세 번째 봉사활동을 펼쳤고, 매년 1,000여 명의 주민을 진료하며 약과 구충제, 그리고 후원물품 등의 료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한 이곳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HBV(B형간염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매년 약 25%의 항체 양성률을 증가시켰고, 현재 75% 이상에 이 항체가 형성되어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홀트학교팀 또한 매년 찾아와서 저희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교구 등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홀트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매년 질 높은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준비해오십니다. 덕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HDC(홀트드림센터) 직원들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스톨란홀트 대학생 봉사팀은 대학생의 이미지에 걸맞게 어떤 봉사단보다 활동적이었습니다. 매년 다른 장학생들이 찾아오지만, 항상 높은 열정과 패기로 아이들을 이끌었고, 팀과 함께 공들여 만든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봉사자는 저희 센터 방문 후, 홀트드림센터의 후원자 또는 팬이 되시곤 한다는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아이들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 "오늘은 내가 쓴다" 홀트드림센터 아이들에게 간식 쓰는 날
- 2 코이카 인턴들의 기관 방문
- 3 홀트아동복지회 실·팀장님들 방문 모습

정신적 빈곤을 채울 수 있던 소중한 시간

지난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시원한 곳, 따뜻한 곳 등 원하는 것을 찾고 만들 수가 있었지만 이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며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요. 출국 전 읽었던 책 중 한 문장이 아직까지 저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을 모른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빈곤이다.'
홀트드림센터에서의 지난 시간은 그들과 소통하며 저의 정신적 빈곤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한국 후원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늘 함께했기에 그들과 캄보디아에 더 큰 사랑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는 것보다 사랑으로 얻은 것이 더욱 많았던 행복한 시간. 캄보디아에서의 3년과 이곳 아이들과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글 _ 이태경 센터장·캄보디아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트라피앙 안찬 마을은?

프놈펜 도시 개발 정책에 의해 강제철거 집단 이주 지역으로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인 프놈펜 시에 속해 있으나 프놈펜 외곽지역에 위치해 시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아이들은 항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종일 방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홀트드림센터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리더 간담회, 부모 교육, CCC(Clean & Clear Campaign), 지역복구사업, 긴급구호사업, 아동교육사업, 교구교재지원, 자전거 지원, 의료 지원, 지역 방역, 급식사업, 분유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빈곤지역 후원 및 결연 문의 02-331-7088

아가, 엄마가 언제나 지켜줄게!

김수현 씨의 미혼모로 살아가기

열아홉 꽃다운 나이에 엄마가 되어 홀로 딸을 키우는 김수현(가명) 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1980년대 우리의 가슴을 적신 만화영화 <들장미 소녀 캔디> 주제곡이 생각난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풍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아이를 지켜낸 멋진 엄마 김수현 씨를 만나러 가보자.



열아홉 소녀, 엄마가 되다

올해 겨우 스물셋. 하지만 김수현 씨는 5살 딸을 둔 어엿한 엄마다. “고3 때 아이를 낳아서...” 얼굴의 숨털이 아직도 보송보송한 그녀가 멋쩍게 웃으며 말끝을 흐린다. 죄인도 아닌데 시선을 아래로 떨치며 말하는 모양이 여태껏 그녀가 싸워왔을 편견의 무게를 짐작케 만든다. “학생이 공부하는 하지 않고 남학생과 어울려 놀다가 사고나 졌다고 한심하게 쳐다보는 어른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판단한 것일까, 별안간 연희(가명)가 수현 씨의 무릎에 앉아서 말을 끊고 애교를 부린다. 연희가 엄마를 찾아온 건 6년 전. 수현 씨가 18살 때였다.

“같은 학교 남학생과 연애하다... 철없게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수현 씨한테 있어서 남자친구는 일종의 유토피아였다. 오래된 가난과 알코올중독인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잠시만이라도 벗어나 자유를, 그리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

였다. 그러나 수현 씨의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다.

“5주 차쯤?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곤 알렸는데 연락을 끊었죠. 본인도 책임질 의사가 없었고 남자친구 집안 반대 또한 심했으니까요.”

아버지 역시, 냉담했다. 그러나 아이를 저버릴 마음은 없었다.

“어릴 적에 사고로 엄마를 잃어서 아이한테만은 저와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죠. 엄마의 부재가 남긴 상실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여실히 겪어본 저니까.”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건강하고도 확고한 고집은 결국 수현 씨를 또다시 혼자로 만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야 했다. 이전과 달리 수현 씨는 안팎으로 더욱 단단해져야만 했다.

연희는 하늘이 내린 '축복'

“그 길로 수현 내내 출산을 도와줄 기관이 없는지 검색했고 우연한 기회에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자시설 <고운뜰>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웃음).”

수현 씨는 고운뜰 숙소에서 머물며 학업도 이어갔다. 고운뜰 내부엔 청소년미혼모들을 위한 대안 학교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기존에 다녀온 학교와 연계해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졸업장을 수여하는 체제였다.

“고운뜰 대안학교에서 수업만 성실히 받으면 출석일 등이 모두 인정돼 고졸 자격 취득이 가능한 거죠. 청소년미혼모의 경우 배가 불러오면 자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야말로 다행 중 다행이었지요.”

덕분에 수현 씨는 무사히 연희를 출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고운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시설을 나가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급한 대로 수현 씨는 인근의 원룸으로 보금자리 옮겨갔다.

“이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더라고요. 아이는 예쁘게 머나먼 미래를 상상하면 무서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능력 없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 하는 의구심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식의 산후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고운뜰 선생님들을 비롯한 이웃 어르신들이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잘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미소).”

2013년 10월, 수현 씨를 어릴 적부터 보아온 교회 목사님 내외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녀를 걱정해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 바로 교회 부설 카페 점원. 하지만 월수입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리기에 많이 버거운 게 사실이다. 그러던 중 고운뜰의 노력으로 재작년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도 입주해서 생활하게 되었고, 여러모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사정은 여전히 열악하다. 알코올중독 치료 중인 아버지 병수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 더구나 열성경련(흔히 6개월에서 5세 사이 비열성 경련이 없었던 영유아에서 발열과 동반해 발생하는 경련)을 겪고 있는 연희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단다. 아버지에게 똑같은 증상이 있는데 1대 걸려 나타나는 유전적인 증상이라며, 연희한테 여러모로 미안할 따름이다.

꿈을 묻자 ‘연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 대답하는 수현 씨. 목소리는 당차지만 눈가는 어느새 축축이 젖어 있다. 그러자 연희가 말한다.

“엄~마~! 엄마 곁엔 연희가 있잖아요!”

엄마를 위로하듯 까르르 웃어 보이는 연희의 모습에 수현 씨는 오늘도 주먹을 불끈 쥔다. **HOOT**

‘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Good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양육모들이 더욱 꽃GoodGood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

장애인 인권운동가 홀트일산복지타운 송경수 씨

50년을 넘게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해서 지역사회에 나가 살겠다고 선언했다.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체로 만드는 동력. 그것은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일 것이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송경수 씨의 예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우리 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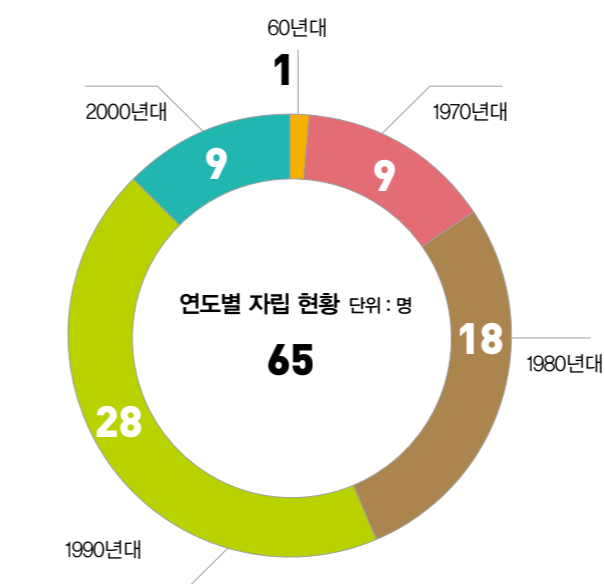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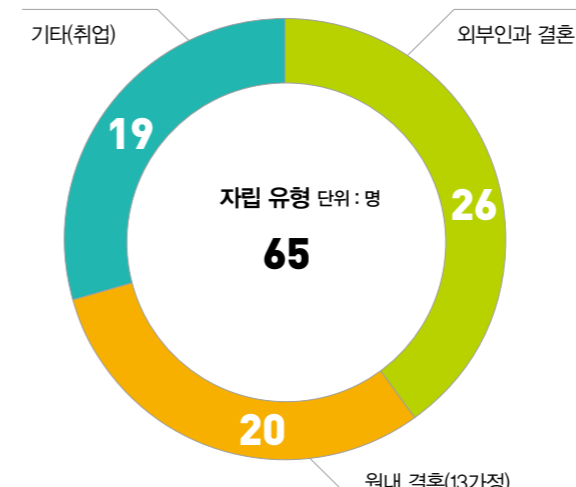


어린시절 송경수 씨(만 15세)의 모습



장애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준 홀트일산복지타운

홀트아동복지회는 창립 이후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입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입양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양육과 가정을 찾지 못한 장애아동들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립한 홀트일산복지타운(이하 홀트타운) 등... 홀트의 모든 아동복지사업은 바로 '가정'이 그 중심이었다. 그중 홀트타운은 장애인들의 보금자리와 재활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시작을 알리고, 홀트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홀트타운 장애인 독립 64명 · 결혼 46명 등 지역사회 복귀 도와

특히 홀트타운은 1961년 건립 당시부터 장애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과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누구나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듯, 장애인들도 때가 되면 홀트를 떠나 가정을 꾸려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결혼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홀트타운에서 지역사회로 독립한 장애인은 65명이며 이 중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사람 역시 46명에 이르고 있다. 홀트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홀트타운에서 독립한 가정들은 이곳을 고향이라 생각하며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듯이 홀트타운을 방문한다. 오랫동안 돌봐주고 키워주신 말리 홀트 이사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민속놀이도 함께 한다.

그중 20가정은 그들끼리 모여 자조모임인 '동그라미회'를 결성해 환갑잔치, 돌잔치, 팔순잔치 등 경조사도 챙겨주고 회비를 모아 휴가 때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독립한 가정끼리 친족처럼 이웃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어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홀트에서는 선두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복귀를 도왔으며, 그 결과 결혼해서 독립한 가정 중 21가정은 33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편견 속에서도 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나라 사회의 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홀트일산타운 석구들과 함께한 (무한도전) 연극 발표회
 2 홀트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
 3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든 '두근두근 행복여행' 캠프
 4 홀트일산타운 퇴소를 기념하는 환송파티

장애인 권리를 위해 일하는 자립장애인운동가 송경수 씨

2014년 12월, 52년 넘게 홀트타운에서 생활하던 송경수 씨는 58세라는 늦은 나이에 지역사회로 복귀해서 세간의 주목과 격려를 한몸에 받았다. 1956년 태어나 부산우정정보육원에서 생활하다 1962년 3월 홀트타운으로 들어온 경수 씨는 50년 넘은 홀트타운 생활에서 벗어난 바깥 속 세상이 무서울 만도 한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제가 뿌듯하다.

“특히 한 달에 두 번씩 동네를 돌아다니며 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들을 조사해서 구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가장 보람 있다”고 말하는 경수 씨. 그는 스스로 생활하는 자신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는 “자립을 위해서는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다른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까지 생긴 그의 예를 통해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얼마나 우리 사회 장애인 복지에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숙제

홀트타운에서는 독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생활동과 그룹홈 등을 운영하며 자립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문제라 할 수 있다. 수급권자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수급비에 맞춰

생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홀트타운은 독립한 장애인들과 앞으로 독립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홀트농장 부지에 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라는 송경수 씨의 말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들 스스로에게 ‘자립’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자립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립이 가능한 사회야말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며,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사회적 약자도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웃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Holt**

글 _ 이창신 · 홀트일산복지타운



오늘은 선물입니다

‘지금’을 사는 남자, 선 홍보대사를 만나다

1990년대 한국 가요계의 대표 아티스트, 힙합듀오 ‘지누션’의 가수 선(노승환)과 배우 정혜영 부부. 나눔과 봉사의 아이콘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기부로 시작한 홀트와의 인연을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1,000여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과 수십억 대의 기부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헌을 인정받아 2014년 파라다이스상을 수상하기도 한 선 홍보대사의 진솔한 ‘나눔 그리고 행복’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누구보다 외로웠던 순간도 있었고 방향을 잃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앙을 통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볼 수 있었고, 혼자서 아님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 수 있었죠. 행복과 불행이 저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누군가는 선 홍보대사에게 “그렇게 힘들게 봉사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철인삼종경기며 마라톤에 매년 1만km씩 도전하며 기부금을 모으고, 한 가족의 가정이 몇 억씩 기부금을 내놓으면 나중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문에 선 홍보대사는 방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나눔이 있는 곳에 저도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된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더 많은 사람의 더 큰 행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들

2007년 일반 후원으로 시작한 선·정혜영 부부의 나눔은 홀트 홍보대사직과 장학기금 기부로 이어졌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목표로 입양 사업, 장애인 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사업 등을 펼쳐온 홀트의 이상과 선·정혜영 부부의 실천하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었다. 선 홍보대사에게 나눔과 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은 그의 삶이 오롯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행복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행복하다, 좋다, 고맙다는 말보다 불평, 투덜거림을 더 많이, 더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불평할 점보다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행복해질지는 개인마다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자신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 넷을 낳아 키우고, 가능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게 최선의 방식이라고. 물론 처음부터 그 방법을 알았던 건 아니다.



선물 같은 오늘을 위해

2009년부터 선·정혜영 부부는 홀트아동복지회에 연간 1억 원씩 ‘꿈과희망지원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부부가 기부한 1억 원의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 100명의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교육비가 되었다. 더불어 이들의 나눔에 공감하는 다른 후원자들의 호응으로 ‘꿈과희망지원금’ 규모가 더욱 커져 2014년 현재 3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유명 브랜드 옷을 못 입고, 갖고 싶은 휴대폰을 못 가지는 건 가난이라기보다 불행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 나의 꿈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짜 가난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제가 ‘꿈과희망지원금’을 기부하게 된 이유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뭔가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또는 다른 세상과 다른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남자,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이 남자,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선의 삶은 바로 지금 이곳에 숨 쉬는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고동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학교 출석 확인할 때 대답하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몇 번 누구 왔어?” 하면 “네” 하는데, 미국에서는 “프레젠티(Present!)”라 답하는 거죠. 그건 “현재 지금,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프레젠티’에는 현재, 지금이라는 뜻 말고도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구나!’ 지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봉사와 나눔을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울러 나눔 앞에 망설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 홍보대사가 건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얼마 전 밤늦게 지방에 다녀오던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이슬이슬 간신히 차가 섰는데요. 그 순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차 뒤에 다른 차가 없었다는 사실도요. 만약 제 차 뒤에 다른 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면 100% 사고가 날 상황이었거든요. 이렇듯 앞일을 모르는 삶이기에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모두 느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내가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일,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한 번 더 고맙다고 말하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선 홍보대사에게 있어 오늘은 바로 또 하나의 뜬지 않은 선물상자. ‘지금’을 사는 남자 선은 설렘 가득한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장 멋있게 즐기는 방법으로 나눔을 택했다. 그래서 선의 오늘은 어제보다 행복하고 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충만하다. **한글**

글_ 박세라 · 재능기부 봉사자



홀트에 찾아온 ‘오병이어’의 기적

FNC 소속 가수 정용화 · 배우 성혁 후원자님

혹독한 지난겨울, 따뜻한 나눔으로 겨울의 온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 배우와 가수가 있다. 작년 한 해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비단이의 친아빠 문지상 역을 맡았던 배우 성혁, 그리고 2014년 미니 앨범 <Can't Stop>으로 10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씨엔블루의 보컬 정용화 후원자다. 나눔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회사, FNC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두 스타가 홀트 가족이 된 행복한 사연을 소개한다.



홀트아동복지회에는 남몰래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있는 스타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연예기획사 FNC 소속으로 홀트에 사랑을 전하고 있는 두 명의 스타가 있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FNC엔터테인먼트 후원자님께 감사패를 직접 전하러 갔던 날, 문득 로비 벽면에 크게 그려져 있던 FNC라는 회사명의 뜻이 궁금해졌다.

“FNC(대표 한성호)는 회사가 세워지기 전부터 스타들을 배출하게 되면 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역할을 해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작은 나눔이 여러 사람을 나눠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뤄내라는 의미’로 ‘FISH AND CAKE’의 약자를 회사명으로 정했죠.”

회사 측의 설명을 듣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SR(사회공헌팀) 유준규 실장은 소속 스타들이 소속사의 마케팅적 전략 등에서 나오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을 많이 베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 마음에 부응해 FNC를 빛낸 스타가 바로 가수 정용화(26)와 배우 성혁(31)이다.

성혁, 드라마 배역을 통해 돌아보게 된 미혼양육모

인기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비단이 친아빠인 문지상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내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성혁은 어느 날 KBS 퀴즈프로그램 <1대 100>에 나가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는 우승. 뜻밖에 큰 상금을 받게 된 것도 놀라웠는데, “받은 상금을 전액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다”고 말해 주위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사실 처음에는 그도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을 했다. 그러다 FNC엔터테인먼트의 사회공헌 브랜드 ‘LOVE FNC’를 통해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알게 된 곳이 홀트였다.

“드라마에서 상대역이 미혼모였거든요. 연기에 몰입하면서 미혼양육모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더 버틸 힘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그리 선뜻 기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의문에 그는 그런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무척 쑥스러웠고, 그보다 보람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한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행운을 얻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행운을 밑거름 삼아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용화, 팬들에게까지 퍼진 나눔의 열기



“요즘 ‘봉사 다단계’라는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언젠가 직접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요.”

FNC의 또 다른 스타이자 우리나라를 넘어 한류 물결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 콘서트와 공연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인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을 텐데 또 하나, 그는 씨엔블루 콘서트 때마다 선물 대신 쌀을 기부받아 빈곤 국가들의 지원 사업에 보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개인 팬클럽을 통해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약 18t의 쌀을 기부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 빈곤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홀트드림센터 방과 후 교실 아이들에게 급식을 배급할 수 있었다. 그곳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성적까지 좋아진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성혁과 정용화 후원자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료와 지인들 사이에서는 “좋은 일 했다”는 격려와 칭찬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팬들이 팬카페에 ‘저도 언젠가는 오빠처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라는 글을 남기는 걸 볼 때, 그들은 나눔에 대한 마음이 전파되는 것 같아 무척 큰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

“요즘 ‘봉사 다단계’라는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언젠가 직접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린 학생들은 물론, 팬들이나 지인들 또한 여러 나눔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그들의 작은 나눔 활동이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성혁과 정용화 후원자. 특히 성혁 후원자는 언젠가 ‘나눔의 십일조를 실천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둘을 보고 있자니 좋은 뜻을 품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만큼 FNC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수많은 스타들도 장차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무엇보다 소중한 성혁 · 정용화 후원자에게 홀트의 가족이 되어준 행운에 깊이 감사드린다. **홀트**

글 _ 방은지 · 후원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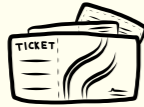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Happy Journey 2014

국외입양인과 동반자를 위한 모국 연수

단풍이 질게 물든 11월의 어느 일요일, 합정동 입양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은 바로 몇 시간 후엔 시작될 캠프를 준비하는 직원들로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해외입양인 동반자 모국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된 'Happy Journey'에 참가한 12명 모두는 오랜 시간의 비행으로 몸은 고단했지만 얼굴은 설렘과 긴장,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박 10일간 한국에서 머물며 동반자와 함께 나의 뿌리를 찾고 문화를 찾아가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 행복한 여행의 추억을 떠올려봅니다.

입양인과 동반자가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



'Happy Journey' 프로그램은 중앙입양원의 후원으로 국외로 입양 간 6명의 입양인과 그들의 배우자 등 총 12명을 초청해 9박 10일간의 모국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국외로 입양된 성장 입양인과 그 배우자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외입양과 입양인의 특성을 이해하며 더 나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입양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일반 모국 연수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배움과 경험보다는 한국문화 체험, 여행과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호텔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처음 맛본 한국음식에 대해 요리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등을 계속해서 물어볼 정도로 급세 한국요리의 매력에 반해버렸습니다.



미술치료와 뿌리 찾기 시간... 친가족 상봉



둘째 날, 입양인과 배우자, 가족을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을 이끄는 강사 역시 국외로 입양, 성장 후 한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어서 입양인들을 더 잘 이해해 감정을 충분히 이끌어내며 해소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그룹별 상담 후 진행되었던 미술치료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주관적으로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참가자 중 막내인 프레스톤이 너무나도 해맑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한국 이름을 소개하는 모습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내내 웃음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진 뿌리 찾기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입양 배경 기록을 열람하고 친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빠와 함께 3세 때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크리스티나는 작년부터 친가족 찾기를 시도했는데, 친부모님이 사망하셔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과거에 홀트로 연락을 취했던 고모의 연락처를 추적해 고모와 그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고,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이와 같은 기쁜 결과를 받게 되어 다른 참가자와 직원들 모두 그의 행복한 가족 상봉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한국을 보다 깊이 느꼈던 여행과 여러 체험들



며칠간의 상담과 가족 찾기의 시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도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3일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로 배를 든든히 채운 후, 감귤 농장에서 열심히 꿀을 따고 맛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쇠소깍에서 바이크 타기, 성산일출봉에 올라가 제주를 한눈에 담고 근처 바다에서 한국의 가을 바다 바라보기 등 제주에서 보낸 시간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10일간의 여정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한편, 여행 후 돌아온 서울에서 붓글씨 체험, 한국 요리 체험 등을 하며 한국의 얼을 이해하고 고유 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통공연 관람을 통해 모국 조상의 과거 모습을 간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찾고, 동반자를 이해했던 잊을 수 없는 추억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고, 참가자들과 직원들 모두 송별 만찬을 함께하며 지난 10일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리는 참가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방문의 기회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많은 입양인과 그 배우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국에 오게 되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과 같은 입양인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고 후원하고 싶다는 그들, 'Happy Journey'를 주관한 홀트와 후원자인 중앙입양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는 행사이기에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프로그램을 진행한 직원들이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과 예쁜 미래를 만나게 되길, 이곳에서 함께 소망해봅니다.



수성구다문화가족과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행복한 동행

홀트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11년부터 함께 지역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진심을 다해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이 전해진 덕에 이웃들의 나눔 체감온도도 상승하고, 웃음꽃도 활짝 핀 홀트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훈훈한 소식을 들어봅니다.



사랑 나눔, 홀트와의 첫 인연

2011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센터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감사하게도 먼저 손 내밀어주신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그날 이후 수자원공사와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부터 기업 내 '물사랑나눔단'을 운영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단순 1회성 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그들. 그래서 직원 모두가 동참해 열심히 웃을 견어붙인 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 3회 '임직원 급여 1% 나눔 운동' 등을 통해 모금한 '물사랑나눔펀드'를 활용하는 등 현재까지 1,300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많은 봉사자도 참여해 명절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월동준비가 한창일 때는 김장 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들은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후원기관, 그리고 인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는 14개 지역 사무소를 총괄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상수도 및 댐 관리, 고령·예천·봉화군의 지방 상·하수도 관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달성보·강정고령보를 비롯한 보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물 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수성구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위탁운영합니다. 지역 내 결혼이민자, 새터민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상담·직업교육,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두 배 즐거운 명절

매년 명절에는 결혼이민자와 물사랑나눔단원과 함께하는 명절음식 만들기뿐 아니라 저소득다문화가정 물품(쌀, 생필품 등) 지원을 연 2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명절 음식 만들기 활동과 관련한 참여 직원을 모집할 때 남자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과연 결혼이민자와 의사소통은 가능할까?' 등의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결혼이민자와 함께 어슬픈 솜씨지만 떡국도 만들어보고, 송편도 빚어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정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져가며 짧은 외국어 혹은 한국어 실력으로 서로 손짓발짓을 동원해 대화하며 웃음 가득한 명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죠.

이렇게 이어져온 봉사는 이제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신청자가 넘쳐나는 최고 인기 봉사활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 역시 봉사자분들을 '파란 조끼 입은 좋은 분들'이라 부르며 함께할 날을 늘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니, 그들은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더없이 어울리는 인연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더불어 준비하는 따뜻한 겨울, 김치 만들기 나눔

수자원공사는 또한, 매년 센터 송년행사에 참여해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김장 봉사활동, 지역 내 저소득다문화가정 김치 지원을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겨울부터 2014년 겨울까지, 벌써 다문화가족과 함께 맛있는 겨울도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함께한 시간만큼 우리 센터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유하고 있는 행복하며 소중한 추억 보따리가 가득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위해 아이를 안고 온 결혼이민자,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게 처음이었던 결혼이민자 등의 모습을 보니 처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기대감, 그리고 열정까지 차 있는 게 보여 새삼 행사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3년 세 번째 겨울은 눈발도 날리고 날씨가 추웠지만 끝까지 서로 도우며 함께했기에 '아직도 잊지 못할 봉사활동'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2015년에도 변함없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이웃으로

지역 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자녀들을 위해 2015년에는 지속적으로 유제품(우유)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가족과도 다름없는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처럼 계속 홀트의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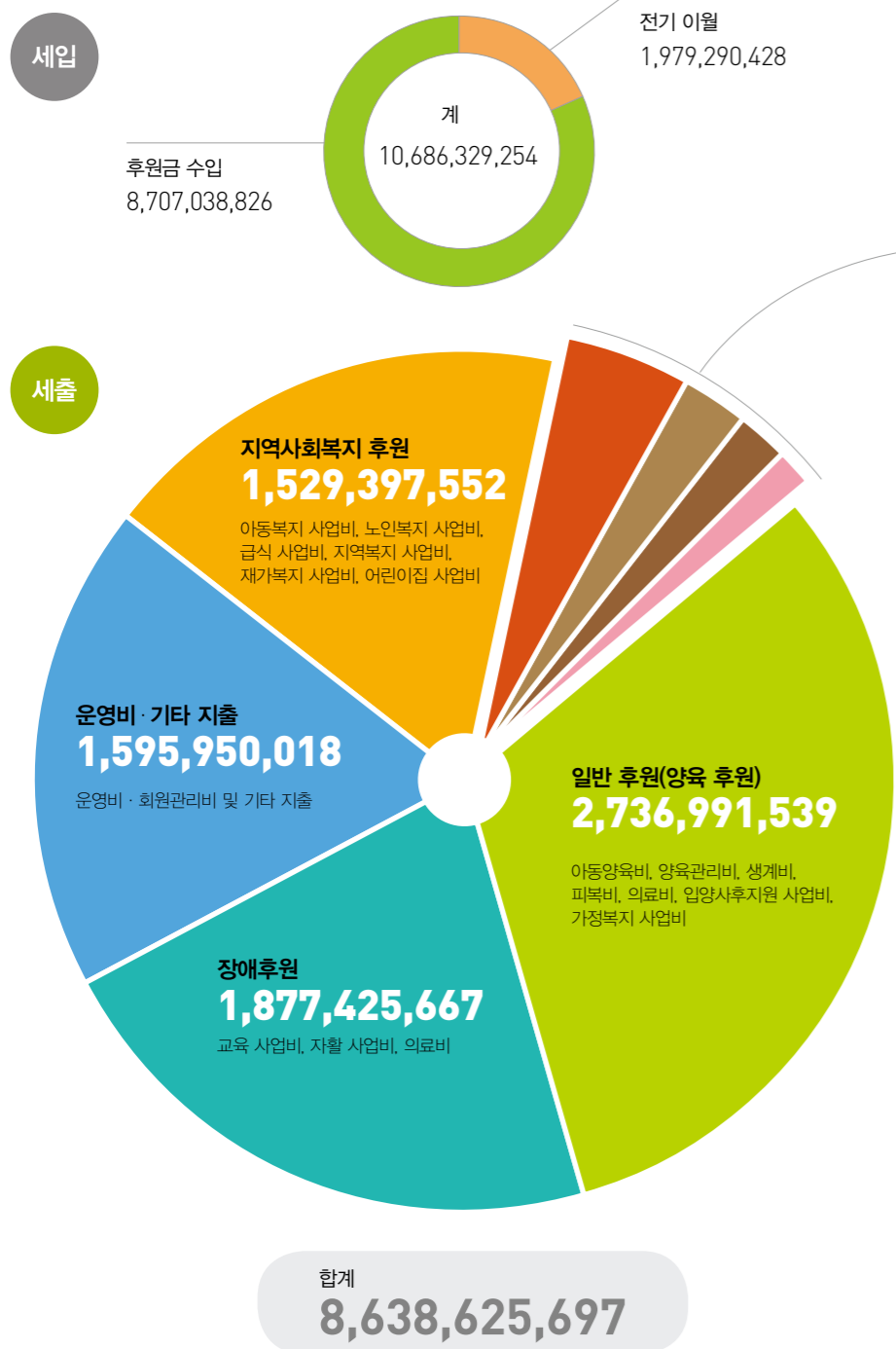


글 _ 김금주 ·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4 후원금 사용 보고

2014년 홀트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들로 국내·외에 나눔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홀트는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홀트를 믿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2014.1.1~12.31) 단위: 원



2014 홀트마을 나눔이야기



해외 사업

38,774/27,496

38,774명 교육 / 27,496명 무상급식

해외 빈곤 아동들 위해 캄보디아, 몽골에 있는 홀트드림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을 진행했고, 무상급식, 분유 지원, 의료봉사 등도 제공했습니다.



국내 사업

306/404

306명 위탁가정 보호 / 404명 입양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아픈 아이들을 홀트병원에서 치료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했으며, 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341/183

341명 장애인 보호 / 183명 장애아동 교육

홀트일산복지타운과 홀트학교에서 장애인 보호 및 재활 교육 등을 펼쳤습니다.

1,194,575

1,194,575명 지역사회복지 제공

전국 5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급식 지원,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949/264

949명 미혼모 보호 / 264가정 지원

미혼모자시설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자립을 꿈꾸게 하고, 264가정에 83,200,000원의 육아지원금과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276,659명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 도모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가정 성장을 돕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76,659



318명, 3억 6,870만 원 장학 지원

전국 빈곤가정 아동과 대학생 31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돕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318/368,700,000

● **사회공헌** ●

삼호뮤직, 꿈과희망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지원
음악전문도서 기업 삼호뮤직(대표 김정태)은 2월 9일 저소득가정 아동의 음악재능교육을 위해 피아노, 우쿨렐레 교재 300권, 컵을 가지고 연주하는 퍼포먼스 '컵타 교육'을 꿈동이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 사랑나눔카페 오픈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 사랑나눔카페가 1월 22일 오픈했다. 사랑나눔카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며 매출의 2%를 우리회 아동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랑팔라투르, 사회공헌 프로젝트 '랑팔 엔젤 전개'
187년 전통의 프랑스 천연 수제비누를 만드는 랑팔라투르가 1월 19일 우리회를 방문해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대표 제품인 마르세이유 비누 200개를 미혼모자 가정에 전달했다.

마더케이 후원물품 전달식



유아용품 전문 기업인 마더케이(대표 김민정)는 미혼양육모를 위한 착한기부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월 15일 우리회 강당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구름빵 홀트패밀리 위촉식 및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업무협약식



12월 30일 우리회 강당에서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홀트 패밀리' 위촉식 및 강원정보문화진흥원(원장 박흥수)과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름빵 손인형 놀이세트 및 뮤지컬 공연작사 기부 등 앞으로 우리회의 복지사업에 함께할 예정이다.

케이비퍼시픽 후원금 전달식

악마크림, 악마쿠션 등으로 유명한 화장품 전문 기업 케이비퍼시픽(대표 진원)이 12월 29일 우리회 아동들을 위해 양육기금을 후원했다. 케이비퍼시픽은 우리회 환아들을 위해 치료비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 사회공헌 협약식



우리회와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의 사회공헌 협약식이 12월 26일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미혼모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의 장인 '캉거루스토어' 5개 지점의 설립을 돕게 된다.

삼광글라스 후원물품 전달식



12월 18일 우리회 강당에서 전문 포장용기 기업인 삼광글라스(대표 황도환)의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전달된 친환경 이유식 용기는 미

혼모 및 위탁가정을 돕는 데 사용된다.

부산의대 아미봉사단 캄보디아 무료진료봉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아미봉사단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무료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B형간염 예방접종, 구충제 지원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현지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모금 전달식

12월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연말 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 300만 원을 우리회에 전달했다.

캄보디아 관훈로터리 후원물품 전달식



12월 10일 우리회에서 관훈로터리(회장 김한웅)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2011년도 캄보디아 빈곤아동 후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캄보디아 지역주민들을 위해 영양제, 의약품, 모기장 등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가수 허각 팬클럽 양육물품 기부

가수 허각 씨의 팬클럽 '허각 갤러리'가 12월 5일 양육 물품을 기부했다. 콘서트에서 진행된 응원스타미케팅이므로 모인 기저귀 2,080개는 우리회 미혼모 가정 및 위탁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본부**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MOU 체결



우리회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신웅) 목사는 2월 6일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미혼 한부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립지원과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제6회 탐리더스 정기총회 열려



우리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탐리더스'(회장 김윤정, (주)씨스테인웨그로 대표) 정기총회가 2월 6일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기금사용보고 및 올해 기금사용 방향을 설정했으며, 탐리더스 회원들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홀씨 서포터즈 2기 발대식

지난 2월 6일 사랑을 퍼뜨릴 홀씨(홀트 사랑의 씨앗)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홀씨 2기는 우리회 다양한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 플라마켓을 통한 후원모금행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선·정혜영 홍보대사, 교육비로 1억 원 기부



우리회 선·정혜영 홍보대사가 2월 3일 '제7회 꿈과희망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두 홍보대사는

위기가정 아동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1억 원씩을 지난 7년 동안 기부한 바 있으며,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총 11억 원의 금액을 후원한 바 있다.

탈런트 박시연, 자선 바자회 수익 기부



12월 20일 탈런트 박시연 씨가 자체 바자회를 열고 동료 배우들의 소장품 및 각종 브랜드의 물품을 협찬받아 수익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수익금은 우리회 미혼모와 신생아 돌기에 쓰일 예정이다.

220인의 착한 산타 만들기 열려

연말을 맞이해 진행된 220인의 착한 산타 만들기 이벤트가 12월 20일 롯데시네마 합정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화관을 찾은 고객들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응원 메시지 쓰기 및 성금 후원 등 따뜻한 나눔에 참여했다.

스타강사 김미경 일일보육교사 및 후원금 전달



스타강사 김미경 씨와 팬들이 12월 16일 우리회 일시보호소 일일 보육교사로 활동했다. 평소 미혼모 지원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김미경 씨는 봉사활동과 더불어 미혼모들을 위한 베이비 케어키트와 후원금도 전달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희망사진전 열려



우리회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서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희망사진전을 개최했다. 전시된 작품들은 2014년 여름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캄보디아에 머물며 촬영한 사진들로,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관람했다.

● **지방사무소** ●

인천사무소 입양 후 부모교육 열려

인천사무소는 '제차 입양 후 부모교육'을 2월 26일 개최했다. AP(부모코칭프로그램)부모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김유정 상담실장(홍경자 심리상담센터)이 진행한 '자녀의 자기 자존감 길러주는 격려기술' 강의와 입양가족 간의 정보교류로 자녀양육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 평가회 실시



대구사무소는 12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또 하나의 가족' 평가회를 열었다. 위탁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2014년 한 해 동안의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목 도모의 시간도 가졌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한대영 님을 추모합니다



1962년 홀트와 한 가족이 되어 생활해온 한대영 님이 2월 18일 소천(향년 57세)했다. 홀트 세탁소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역도선수로, 영혼의 소리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고 한대영님은

위암 3기로 판정받은 후 투병생활을 해왔다. 삼가 고인을 애도합니다.

● **홀트학교** ●

캄보디아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홀트학교 교사들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교육봉사가 이뤄졌다. 과학의 날과 건강의 날 등 매번 주제를 정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생일문화가 없는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해 축하파티를 마련해 주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송어축제 참여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훈련생들은 1월 23일 '파주송어축제'에 다녀왔다. 송어얼음 낚시체험, 눈썰매, 전통얼음썰매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겨울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누리 어르신학교' 입학식 실시

달서구 본리종합복지관에서는 1월 13일 '본누리 어르신학교' 입학식을 진행했다. 500여 명의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과목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을 받지 못한 노년층의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시행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홀트 종이 저금통 모으기 이벤트 등 다양한 모금이벤트를 통해 1,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됐다.

(재)넥센월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



운봉종합사회복지관과 넥센월석문화재단은 1월 20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460포(2천만 원 상당)의 쌀은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전달되었다.

하남도시공사와 함께하는

소원선물 전달프로젝트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하남도시공사의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아동·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소원선물을 전달하는 '몰래 찾아온 산타' 사업을 진행했다. 하남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직접 산타로 변신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홀트나눔학교' 실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참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홀트나눔학교가 진행되었다. 나눔 교육, 장애인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눔 실천가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 **미혼모자시설** ●

고운뜰, 싱글맘들의 자조 모임 가져



고운뜰은 '고(고운뜰과) 고(고운 마음을 키워나가는) 쌍싱글맘들의 모임!!!'이라는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12월 20일 자조모임 행사를 진행했다. 미혼양육모 31가정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 클로버, 입소 아동 돌잔치 마련

대구 클로버에서는 입소 아동들을 위한 돌잔치가 1월 9일 진행되었다. 돌잔치 전문 업체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돌잔치는 경제적인 이유로 돌잔치를 진행할 수 없었던 미혼모 자녀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었다.

아름뜰, 입소자 경제교육

아름뜰에서는 12월 중에 입소자들이 올바른 소비습관을 익히고, 합리적인 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4회의 집단강의와 2회의 1:1 개인상담으로 구성해 개별 입소자에게 맞는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바람직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음 모아 가족봉사단 발대식 진행



2월 14일,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마음 모아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8년째를 맞이하는 봉사단은 올해부터는 가족 저금통 모금 캠페인

을 펼쳐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초등취학 전 자녀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들은 1학년, 나도 잘할 수 있어 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활 속 환경호르몬 및 유해물질, 안전한 먹거리 선택, 용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왕실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1일 중국,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국립고궁 박물관 전시설을 방문해 조선 왕실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궁중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새해 복 많이~ 행복 더 많이'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1일 한국의 설을 이해하고, 명절음식을 만들어보는 '새해 복 많이~ 행복 더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의 참여로 다문화가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다문화가정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월 21일 (주)아테나 뉴스 커뮤니케이션스가 지원하는 '2015년 다문화가정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장학금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홀트심리상담센터 무료심리검사 지원



홀트심리상담센터는 2월 4일 경제적인 이유로 심리 관련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심리검사를 지원했다. 총 22명이 심리검사를 지원받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전주영아원** ●

전주영아원, 여수아쿠아플라넷 겨울 캠프



12월 16일 전주영아원 아동들은 여수아쿠아플라넷으로 겨울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바닷속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특별히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전주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했다.

● **어린이집** ●

약국체험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포어린이집은 12월 18일 마포구 약사 회관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받았다. 직접 약

사가 되어 처방전에 따라 약 봉지를 만들어보는 등 약국 체험을 통해 미래의 약사를 꿈꿔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홀트 천사들의 작은 발표회



홀트어린이집은 12월 23일 홀트 천사들의 작은 발표회를 진행했다. 원아들은 감직한 울동을 선보이며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솜씨를 발휘했으며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 **전국후원회** ●

강원후원회 신년하례식 개최



강원후원회(회장 신명숙)는 강원사무소, 다문화센터와 함께 신년하례식을 1월 21일 개최했다. 올해는 허남순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자신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대전후원회 제35차 정기총회 개최

대전후원회(회장 김남신)는 1월 8일 제35차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지도부를 결선했으며, 앞으로 2년간 홀트아동복지회 대전후원회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했다.

경북후원회 싱글맘돕기 일일찾집 개최

경북후원회(회장 정영숙) 회원들은 12월 1일 싱글맘을 돕기 위한 일일찾집을 개최했다. 많은 지역 주민의 방문과 후원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된 일일찾집 후원금은 경북후원회 이름으로 전액 우리회에 전달되었다.



착한태교
280일의 설레임

280일은

7일×40주를 의미하는 말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기간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의 설렘과 감사, 기쁨의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미혼모자 가정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용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 기념 ‘홀트와 나’ 수기 공모

홀트아동복지회가 소외된 아이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며 걸어온 지 어느덧 6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펼쳐온 오랜 시간 홀트아동복지회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을 만나고,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도 만났으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감동도 만났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60주년을 맞아 홀트와 함께한 따뜻한 사연을 찾아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수기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다립니다.

● 응모 기간

2015. 5. 1(금) ~ 2015. 6. 30(화)

● 참가 자격

- 입양인, 입양부모, 미혼모, 홀트에서 도움받은 분들, 자원봉사자, 후원자, 홍보대사, 장학생, 임·직원 등 홀트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

● 형식

- ‘홀트와 나’의 이야기를 수필(수기) 형식으로 작성
- 한글 폰트 11포인트, 줄 간격 200, A4 2장 분량
- 사진 첨부 시 : 1200 pixel 이상 JPG 2장 이내

● 접수 방법

- 제출물 참가신청서(www.holt.or.kr 다운로드)와 응모작
- e-mail 접수 사진·동영상 prholt@hanmail.net
- 방문 및 우편접수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 발표

2015년 8월 ~ 9월 중 예정

● 시상 내역

사진	명/상금
대상	1명 / 100만 원
최우수상	2명 / 각 50만 원
우수상	5명 / 각 30만 원
장려상	10명 / 각 20만 원
특별상	15명 / 각 10만 원

●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02-331-7079
prholt@hanmail.net

● 주최

홀트아동복지회




 기술의 희망 | IBK기술금융


 취업의 희망 | IBK일자리창출


 노후의 희망 | IBK평생연금


 창조희망 | IBK문화콘텐츠금융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기업과 국민의 희망을 키워온 IBK기업은행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적인 생각으로
 국민 모두의 평생행복을 또 한번 이어갑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 IBK투자증권 | IBK연금보험 | IBK자산운용 | IBK저축은행 | IBK시스템 | IBK신용정보 | IBK서비스